

이승엽 “KBO 홍보대사와 야구재단 완벽 수행하고파”

메이저리거서 복귀 박병호·김현수 “집으로 돌아와...무조건 성적 낼 것”



2018 KBO리그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이 열린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정운찬(왼쪽부터) KBO총재와 위성호 신한은행장, 홍보대사 이승엽이 기념 유니폼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이온 킹’ 이승엽(42)이 KBO 홍보대사와 이승엽야구재단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엽은 16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2018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에 참석, 자리를 빛냈다. KBO리그가 신한은행과 만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1000만 관객 시대를 열기를 기원했다. 선수가 아닌 KBO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몹시 낯설어했다. 선수 시절이면 1월은 몸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지만, 현재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는 것을

멋쩍어하기도 했다. 이승엽은 “어안이 병병하다 내가 행사를 주최한 것은 아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왔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하겠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니 KBO와 협의를 통해 프로야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운동은 중단했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몸은 그대로인 거 같지만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불고 있다. 큰일 났다”며 웃었다. 야구 재단 이야기도 꺼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야구재단 설립

을 준비 중인 이승엽은 “사무국장, 이사 등 구성원들은 다 준비됐다.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재단을 출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누가 봐도 잘하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도록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단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박찬호 선배가 2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다. 행사장 화면에서 박찬호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프로야구에 온 선수들이 나왔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 닿았다. 박찬호 선배처럼 좋은 재단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면서 울컥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홍보대사와 재단 업무가 겹칠 수 있다. 그러나 “KBO를 위해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열심히 할 것이다. 맡겨준 분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단 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걱정이 조금 되지만, 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많을 것”이라는 답이다. 박병호, 김현수 등 메이저리거에서 KBO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메이저리거에서) 많은 돈을 받고 뛰었지만 사실 힘들었을 것이다. 모든 환경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건 본인 입밖에 모른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 성적은 무조건 낼 것이다. 좋은 리그를 경험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면서 노하우와 경험을 전해주면 서로서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스스

전남드래곤즈 2018 시즌카드 판매

티케팅 3월 2일 · 구단사무실서 3월 9일까지 구매 가능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17일부터 구단 사무실과 티케팅(http://www.ticketlink.co.kr/sports/football/event/89)을 통해 2018년 전남드래곤즈의 모든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즌카드를 판매한다. 이번 시즌에는 전남드래곤즈 홈경기(21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일반 시즌카드와 MD상품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다. 홈경기 21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일반 시즌 카드는 80,000원이며, 카드홀더, 사인볼 교환권, 팀블러와 결합된 일반 시즌 카드 패키지 상품은 100,000원에 판매된다. 또한 새로 신설된 VIP 패키지를 구매한 분에게는 카드 홀더, 무릎담요, 목베개, 클러치백, 머그컵이 제공되며, 가격은 50만원이다. VIP 카드를 소지하면 VIP 관람석에 앉아 전남드래곤즈 홈구장에서 개최되는 모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으며, 음료와 디파가 제공되는 VIP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남드래곤즈 관계자는 “2018 시즌카드는 티케팅에서 오는 3월 2일까지, 구단 사무실에서는 3월 9일까지 구매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드래곤즈 부채재본부장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영광군계이트볼구장에서 제 3차전에 선발된 12명의 선수들이 2일째 최종 선발전에 임하기 위해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계이트볼협회, 브라질 선수권 대회 대표선수 확정

3차전 거쳐 총 7명 선발 전국대회 출전

전남계이트볼협회(회장 장귀남)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1, 2차전을 거쳐 선발된 선수 중 브라질 선수권 대회 대표선수 최종 선발전을 영광군 계이트볼구장에서 치렀다. 3차전은 그 지역 구장의 특성을 배제하기 위해 영광군 내 3곳의 구장을 예고 없이 돌아가며 경기를 진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남도협회 김종덕 경기위원장은 최종 선발전인 만큼 동등한 입장에서 예측불허의 경기를 유도 감독 하면서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고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지시했다. 이들은 내달 20일부터 3일간 전

국대회에 출전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기량을 발휘하게 되며 이후 도 협회에서 상비군으로 운용할 계획에 있다. 한편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남도 대표선수로 전국대회에 출전 할 인원은 감독 김영선, 주장 최규태, 김원백, 김중덕, 국문호, 황규용, 구병목, 서영 선수 등 선수 9명이 최종선발 임명되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다이아, 평창 디전수단 주장...12년만의 여캡틴

‘토끼이빨 외계인’ 호나우지뉴 공식 은퇴 선언...“그는 멈췄다”

한 시대를 풍미한 축구선수 호나우지뉴(38·브라질)가 역사의 뒤안길로 향한다. 호나우지뉴는 17일(한국시간)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생활을 접는다고 밝혔다. 호나우지뉴의 형제이자 에이전트인 호베르투 아시스는 “그는 멈췄다. 끝났다”고 은퇴를 공식화했다. 호나우지뉴는 2000년대 초중반 세계 축구계를 뒤흔든 선수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호나우두, 히바우두 등과 함께 브라질에 우승컵을 선사했다. 2005~2006시즌에는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이



끌며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 팬들은 빼어난 축구실력을 자랑하는 그에게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30대에 접어든 뒤에는 브라질, 멕시코 클럽 등을 오갔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호나우지뉴는 각 대륙을 돌며 이 벤트 경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서는 일본 선수단 주장으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주장 고다이아 나오(32)가 선정됐다고 17일 스포츠호치 신문이 보도했다. 이상화(29·스포츠투토)의 라이벌로 국내팬들에게 잘 알려진 고다이아라는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최강자다. 평창 대회 500, 1000, 1500m에 출전한다. 500m에서는 3연패를 노리는 이상화와 정민승부가 예상된다. 일본이 동계올림픽 주장을 여자 선수에게 맡긴 것은 2006년 토리노 대회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오카자키 도모미가 주장으로 참가했다. 기수는 8번째 동계올림픽을 참가를 앞둔 스키점프의 개시 노리아키(46)로 결정됐다. 4년 전 소치 대회 주장에서 기수로 자리를 바꾼 가사이는 “(소치대회가 끝난 뒤) 다음에는 기수가 되고 싶었는데 매우 영광스럽다. 열심히 기발을 흔들겠다”고 말했다.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 넘버2”

총 9287점 언어 해리 케인 이은 전체 2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에서 뛰는 손흥민이 EPL 파워랭킹 2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17일(한국시간) 영국 스키아 스포츠가 밝힌 EPL 23라운드 파워

랭킹에서 9287점을 얻었다. 9676점의 팀 동료 해리 케인에 이은 전체 2위다. 손흥민은 사흘 전 영국 런던의 웹클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

과의 시즌 23라운드에서 1골1도움으로 활약했다. 전반 26분 오리에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내준 땅볼 크로스에 발을 갖다대 선제골을 기록했고 후반 2분에는 드리블 돌파 후 해리 케인에게 완벽한 패스를 제공해 도움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10일 스토크시터와의 16라운드를 시작으로 12월14일 브라이튼 호브 엠비언전(17라운드), 12월20일 사우샘프턴전(20라운드), 이달 5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22라운드)에 이어 에버턴전까지 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을 넣으며 2004년 저메인 데포가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4-0 승리에 기여한 손흥민은 경기 후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MOM)’로 뽑혀 트로피를 받았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공격수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8398점으로 3위에 올랐고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알렉스 옥슬레이드 캠벨레인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뉴스스

손흥민, 北 한광성과 한술밥?...토트넘 접촉설 이탈리아 매체 보도...다른 언론은 유벤투스 이적 유력해

한국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26·토트넘)과 ‘북한 호날두’로 통하는 한광성(20)이 잉글랜드에서 한술밥을 먹는다고 쉽게 그려지지 않는 이 그림이 어쩌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탈리아 매체 부토메르카토는 17일(한국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핫스퍼가 북한 U-19 대표팀 출신인 한광성의

에이전트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1998년생인 한광성은 칼리리 갈초에 입단한 뒤 이탈리아 세리에 B(2부리그) 소속 AC 페루자로 임대됐다.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올 시즌 17경기에서 나서 7골도움을 올려 빅클럽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광성의 토트넘행이 더욱 관심을 끄는 이유는 손흥민의 존재 때

문이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 보도가 정확하다면 한광성은 한국의 슈퍼스타인 손흥민과 함께 하게 된다”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정황상 한광성이 실제로 토트넘에 합류할 가능성은 그러나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 이적이 유력하다. 유벤투스는 오래 전부터 한광성 영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이탈리아는 유벤투스가 내년 시즌 한광성과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스